

제3권 (7단원 : 은혜로운 교회 생활)

(제37과) 참된 예배 생활

- 본문 : 요한복음 4:1-26
- 요절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 찬송 : 25장(새찬송가 25장), 364장(새찬송가 338장)

한번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정오 때쯤 되어서, 예수님 일행은 동리 어귀에 있는 ‘야곱의 우물’로 유명한 ‘수가’라는 동리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리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혼자서 그곳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마침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우물로 왔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는 말씀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신 다음 계속해서 그 여인에게 구원의 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잠시 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어 새로운 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일반의 편견과 무지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예배 생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예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인데, 이는 ‘존경의 표시로 손에 입을 맞추다’라는 뜻으로 최상의 존재에게 찬사와 영광을 돌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시 95:6) 하였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시 99:5) 하심으로 예배 생활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예배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는 아래에 인용한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엡 1:3~6).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 즉 예배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생활은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힘써 행해야 할 본질적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2.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요 4:20) 하였는데, 이는 그녀가 예배자의 내적 자세보다는 예배의 장소나 형식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하심으로, 예배의 본질이 예배의 외면적인 형식에 달려 있지 않고 예배에 대한 성도의 내적 자세에 달려 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자세란 무엇일까요?

‘신령’이란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 하셨는데, 이 말씀은 신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는 겉으로 꾸미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온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도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진정’이란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광적으로 경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를 통하여 진리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처럼 미지근한 태도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거나 또는 진리의 말씀에는 무관심한 채 맹목적인 열광주의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활기찬 예배 생활을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6:19) 하신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하신 말씀대로, 성도들은 매일 매일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삶을 통한 예배에 힘쓸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씩 들쭉 모여서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엡 2:20~22). 이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4~25)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고, 교회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모이기를 힘씀으로 늘 활력이 넘치는 예배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배 생활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예배 생활을 위해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